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 의견 요지

1. 2027년 주민의견서
※별지 참고

2.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

순위	사업명
1	평생학습관 운영
1	경로당 신축
2	관광홍보물 제작 등, 수도시설 동절기 보온재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2027년 홍천군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 원 장 성명 최범용 (서명)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김승욱 (서명)

홍천군 일반세출사업 주민의견서

행정과 소관사업

Ⅰ 주요사업별 의견

□ 군민의 날 운영

❍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음. 그런데, 현재 면단위 군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와 프로그램 내용, 장소를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면 함.

❍ 행사의 내용에 있어 군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일부가 참여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일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와 연계되어 있어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기념행사가 되어 군민 화합의 날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음.

□ 방범용 CCTV 설치

❍ 방범용 CCTV의 경우,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야간 시간대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에 대한 주민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CCTV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다양화되었으면 함.

❍ AI인공지능 음성인식비상벨을 도입하여 특정 비명소리가 감지되면 112 상황실로 연결되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인근 경찰이 빠르게 대처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영등포구나 송파구의 경우, 2025년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했음. 기존 버튼식을 개선하고 AI음식인식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통해 특정 비명 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경광등을 작동하고 112에 즉시 연결되도록 하였음.

- 매일일보,「영등포구, 으슥한 골목에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2025.12.24.
- 보안뉴스,「송파구 AI비상벨로 주민 안전 강화」,2025.11.26.

Ⅰ 주요사업별 의견

□ 청년의 날 행사

○ 장애청년의 실질적인 참여기회 확대 필요

- 홍천군의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장애청년 역시 홍천군의 당당한 청년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축제·교류·취업·사회참여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청년을 단순한 관람객이나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의 날 행사에서 공연·전시·체험부스·홍보·토론·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청년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다른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장애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직업 및 진로 경험, 사회참여 활동 등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 운영

○ 건강과학관 운영에 있어 면단위 이하, 원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토요과학교실, 과학교실 특강, 청소년 과학탐구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홍천읍의 청소년들은 접근성이 좋고 인원이 많아서 참여의 효율성은 있으나 면단위 이하, 원거리 청소년들은 참여가 제한될것으로 생각함. 면단위 이하 청소년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배정, 이동을 위한 예산 확보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홍천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과학교과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였으면 함.**

❍ **홍천군에서 다양한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의 체험, 홍천군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광물등의 자원 소개등을 알리고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을 듯 함.**

- 아래 연구에서는 과학교과 및 지역의 자연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결과와 진로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효과와 지역자원 연계 진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미래 작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설명함.
  - 문병찬,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지역자원을 활용한 과학교과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3.
  - 임수정,백병부,문민지,임고운, 교육과정평가연구,「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 사례」,2023.
-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의 경우, 폐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한 주민들의 기피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변화시키는 등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임. 이처럼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체험학습이 필요함.

II 기타의견

❍ **청소년문화예술축제와 홍천군의 관광자원 축제와 연계를 통해서 재능있는 청소년 공연 동아리, 홍보 동아리등으로 청소년들이 사전 회의 과정에서 직접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공연 구성, 현장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 참여, 홍보등의 효과를 높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함.**

-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참여기구가 주도하여 축제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축제장소 역시 청소년수련관 인근에서 진행함.
  - 아주경제,「양구군 청소년참여기구, 곰취축제 연계 체험부스 운영…78명 참여」, 2026.04.27.
-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부스를 포함해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한 39개 체험부스를 마련하였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이루어졌음. 또한 탄소중

립 실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환경체험과 캠페인을 여는 등 지역 축제의 내용과 참여 대상이 다각도로 이루어짐.

- 아주경제, 「광명시, 축제 직접 기획·운영…지역 상권·환경 캠페인도 연계」, 2026. 05.25.

○ 장애청년을 복지의 수혜자로만 대상화할 것이 아니라 홍천의 청년으로서 정책과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기회가 줄어드는 장애청년에게 청년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또래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 홍천군의 청년정책이 장애청년을 단순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 장애청년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청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요청함.

Ⅰ 주요사업별 의견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이후의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 필요

- 읍·면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로 청소년의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별·대상별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 필요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이후의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읍·면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로 청소년의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별·대상별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면 단위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설되어야 함.

- 자가차량이 없는 면단위 청소년들은 읍단위 거주 청소년보다 접근성이 취약함.
- 홍천읍 거주 청소년만 편애하는 프로그램은 면 단위 거주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혜택의 이질감을 갖게 할 수 있음.

-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홍천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간 접근성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드시 홍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장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면 단위에서 협조가 되는 장소를 섭외하여 출장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홍천군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청소년에게 비장애 청소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기존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장애청소년이 실제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디지털·진로체험·사회성 향상·자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보완·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청소년의 참여에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지원, 활동 보조, 이동 및 편의지원 등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은 있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홍천교육지원청(학교 포함),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 등과 소통하여 학교에 홍보 연계 필요

- 홍보가 면단위까지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의 경우 홍천교육지원청에 각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연계 홍보 요청 필요.
-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기관에게 공문 발송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협업을 위한 노력 필요.

○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대상 연령은 9세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운영하기보다는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 9~12세 : 문화·예술·놀이·창의체험·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13~15세 : 진로탐색·문화예술·동아리·디지털 역량 프로그램

▶ 16~18세 : 진로·직업체험·자기계발·사회참여 프로그램

▶ 19~24세 : 취업·창업·생활역량·자립·청년문화·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연령별 수요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연령대의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연령대 중심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참여율이 낮은 연령층에 대해서는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함.

□ 평생학습도시사업

○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 홍천 평생학습축제는 홍천군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동아리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25년 기준 87개 단체, 5864명이 참여하는 등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평생학습축제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동아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한 의미있는 사업임.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연, 마켓 한마당을 비롯하여 문해 골든벨,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배우고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홍천의 자연 문화, 농업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홍천만의 특색을 살린 평생학습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평생학습축제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제과정에서 소개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홍천군이 진행하는 후속 프로그램과 학습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프로그램과 축제에서의 주민 만족도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평생학습축제가 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람.

- 어르신, 청년,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세대나 계층이 각각 분리되어 참여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계층통합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연계했던 사례처럼 앞으로도 청소년·청년·장애인·어르신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기를 요청함.

○ 지속적인 세대 소통 공감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지속성 유지 필요

- 2025년도 평생학습 축제 당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를 연계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청소년 및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기를 요청함.
- 특히 평생학습축제에서 청소년·청년의 참여 비중을 높여 젊은 세대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홍천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11회 홍천군 평생학습축제와 제13회 홍천군 청소년문화·예술축제가 최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홍천군, 평생학습·청소년문화축제 성료...배움과 성장의 장 열려」, 2025. 5.25

- 축제의 참여 프로그램 중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70% 이상으로 보임. 이에 평생학습축제가 고령층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년층도 배우고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문화·예술·디지털·창업·직업역량·생활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축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및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부스, 플리마켓, 공연, 전시 등을 확대하여 축제의 기획자이자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서 연계된 축제로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청소년 및 청년층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착 의지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사회적약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정 TO 및 전용 참여공간 마련 필요**

- 홍보체험 부스 운영 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일환의 축제 참여 유도
- 평생학습 축제 전 공문 발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청년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비영리 단체 기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부스 마련 필요
- 체험·홍보·전시·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시 한마당, 마켓 한마당을 꼭 동아리 참가자만 참여하도록 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서 진행하던 평생교육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회를 주어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원함.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준비한 악기연주, 합창, 난타, 우쿨렐레, 문화예술 공연 등을 공연 한마당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관 운영

❍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홍천군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함.**

- 홍천군은 지역특화 평생학습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창업, 취업, 지역활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

❍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홍천군의 경우, 매우 넓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9개 읍면 12개소에서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230명이라는 평가는 수강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취미, 여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또한 중장년, 노년층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전 주민 수요조사를 거치고 수강 후 만족도와 개선요구를 확인하여 다음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느린학습자 포함)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함.**

- 홍천군 인구정책 중 인구 유출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판단됨
- 장애인(느린학습자 포함)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특수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비장애 자녀 양육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장기적인 양육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함
- 추천 프로그램명 : PCP(Person-Centered Planning, 사람중심실천) 부모교육프로그램
- 취지 : 장애인 구성원을 둔 장애인 가족 역시 사회적 약자이며, 가족의 울타리가 든든해야 장애인 역시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가능함.
- 장애인가족 역시 장애자녀의 성장과 함께 돌봄, 교육, 성인기 전환, 자립생활, 부모의 노후 준비 등 새로운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가족교육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한 영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성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은 학교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평생동안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장애인의 경우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주요 대상자로 포함하여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생활교육, 자립생활교육, 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개별화된 편성이 필요함.

□ 남면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 **생활체육공원의 개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조잔디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력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체육공원에 조성되는 인조잔디의 경우, 배수 침하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관리운영방식(대관,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폭우 후에는 물고임, 파일 눌림, 충전재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조잔디의 장기사용과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 배수 구조 문제는 폭우 후 물이 잔디 위에 고이거나 침하가 생겨 경기가 중단되거나 재개가 어려워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해 넘어짐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평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함과 동시에 편의시설의 경우 당초 실시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여주군에서는 2009년 저가의 인조잔디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호르몬 검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그러나 2011년 설치했던 인조잔디의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다 높은 가격이나 주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했던 경험이 있음. 예산 문제로 최저가 입찰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경인일보, 2011.09.28., 「체육공원마다 값싼 인조잔디...건강위협」, 2011.09.28.

II 기타의견

❍ **주민 수요조사와 요구 프로그램 조사 반영 필요**

- 홍천군 홈페이지, 지역에 프로그램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게시판이나 각 반, 리에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과 지역경제 및 주민활동을 연계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홍천형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수 있음

관광문화과 소관사업

Ⅰ 주요사업별 의견

□ 관광홍보 및 마케팅

○ 홍천군의 경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및 행사를 추진하여 홍천 관광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분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 팸투어, 관광박람회, 모바일 스탬프투어, 드론라이트쇼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보사업은 긍정적임. 단,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시간, 재방문율, 지역소비 등 다각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함.

○ 계절별 관광상품과 농업인, 소상공인,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연계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함.

- 농촌체험, 농특산물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

○ 농촌테마공원 체험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관내 홍보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현재 관내 현수막,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군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행사가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 효과성을 파악하여 홍보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테마공원의 행사는 주로 10월에 개최됨. 그 시기 수타사를 방문하는 산악회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타사 인근의 산행객들이 공원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관이나 농특산판매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체험행사 시 설치되는 농산물 부스의 경우 물품이 부족하고, 방문시 구입물품의 종류 및 수량의 부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음. 체험행사 및 공연이 있을 때에는 좀 더 넓은 곳에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여 홍천 농산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평상시 공원 운영시는 물론 체험 행사 등이 있을 경우, 방문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체험행사나 공연이 끝나게 되면 인근이 매우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조명 및 안전요원 등)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함.
- 여름철에는 햇빛이 강하고 그늘이 충분하지 않아 관람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시기 관람객이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이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홍천미술관 운영

○ **홍천미술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 홍천미술관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설 및 전시 장비 확충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지역예술인의 전시참여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군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가 전시장비 구입시에 구입 필요성, 활용계획 및 이용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함.
-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조)에 따르면 홍천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기여를 목적으로 함. 따라서 관람객 증대와 함께 지역작가 지원 성과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사업을 평가해야 함.

○ **미술관 운영을 위해 공무원간의 협업과 업무 역량을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창작활동에 기여와 문화예술 진흥,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는데 있음. 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시 및 행사의 경우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년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전출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하되, 홍보 내용이 지역 연계 성과를 담을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시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은 홍천 지역 예술인 참여에 대한 내용보다 '큰 호응', '새로운 기록',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고품격 콘텐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 기관의 목적인 지역 연계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드러나지 않음. 최근 3년간 관람객이 많았다는 보도자료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나 외부평가는 확인할 수 없음. 단순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미술관 운영을 통한 효과에 대한 내용이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와는 별도로 유튜브, 인스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 해야 함.

□ **악기박물관 운영**

❍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 필요함.**

- 악기박물관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행사 등을 통해 홍천군 전체 군민들이 본 박물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악기를 활용하는 기회가 홍천군 내 노인회, 예총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대하고 단체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특정 시기에 특정 단체가 혜택을 독점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도록 함.

II 기타의견

❍ **행사장의 문화 시설 무대들이 경사로가 없어 보완이 절실함.**

-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무대로 올라가 수 있는 경사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음.
- 당장 휠체어 탑승자가 홍천군청의 대회의실에도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 올라갈 수 없음.
-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시급함.

Ⅰ 주요사업별 의견

□ 경로당 신축

○ 경로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시설을 고려

- 최근 홍천군 화촌면 내 장평1리의 경우, 자제 및 시공방법 등을 선택할 때 장기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였음. 향후 신축되는 경로당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함.
-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컴퓨터로 회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여 향후 이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 신축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핵심으로 하여 이용자(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 등을 함께 검토함.

- 화재가 발생할 시 대피가 용이하지 않은 경로당 이용자를 배려한 시설 설계가 필요함.
- 홍천군 경로당의 편의 사항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함.

구분	편의 사항	점검 포인트
접근성	출입구·진입로 경사로	경사도, 핸드레일, 단차 보완
이동 동선	내부 동선	넓은 통로, 회전 공간, 장애인 동선 확보
안전	화장실 비상구 등	장애인 화장실 기준, 도움벨, 비상벨
정보	안내 표지	점자블록, 측지판, 안내 표지 표기

Ⅰ 주요사업별 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

○ 홍천군 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소재로 보완하여 유지보수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

- 기사에 따르면 투수성 친환경 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마모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포장재의 착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포장면의 손상을 방지하여 이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충청투데이, 「투수성 친환경 도로포장 국내시장 선도」 2013.11.18.

○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 도로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함.

- 연봉리 일원의 자전거 도로 노면 재포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나 본 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보다 도보 운동을 하는 주민이 훨씬 많아 자전거 이용자와의 접촉사고도 우려됨. 향후 자전거 이용과 도보 이용을 분리하는 방안이 도로 개선에 포함되었으면 함.
-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노면 표시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로 인근 공간 활용 방안 고려

- 자전거 이용도로 옆 토리숲을 활용하여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한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과 함께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때, 실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함.

- 자전거도로가 설치할 때, 언덕이나 도로가 교차하는 곳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이파크, 세영아파트 언덕길의 경우, 차량과 자전거 간의 사고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시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가로등 신설 및 보수

○ 가로등 신설의 경우,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편의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 안길이 회전 구간이 많아 설치의 위치에 따라 가로등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 굽어진 길의 경우, 회전의 바깥쪽에 설치하고, 삼거리 쪽의 경우는 세 곳 모두를 비출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임.
- 가로등의 높이나 거리 등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가로등 설치 장소 선정의 경우, 주민 필요성에 따른 원칙을 적용함.

- 학생들의 하교길의 안전을 위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장소 선정의 원칙이 되길 바람.
- 읍내의 경우, 기존 상가가 없어지거나 야간 소등으로 인해 어두운 지역을 확인하여 가로등을 설치함.

○ 가로등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가로등의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청취 필요

-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가로등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유지관리 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

○ 주민 안전을 반영한 신호등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람.

- 바닥 신호등의 경우, 제대로 유지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인식하기에 불편함.
- 교차로의 경우, 일부 구간은 신호등을 끄고 황색등만 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모든 교차로에서는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보행 깃발'의 경우, 주기적 교체가 필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행 깃발이 오래 되어 운전자가 인식할만큼 색이 뚜렷하지 않고, 크기도 작음. 보행 깃발의 교체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함.



뉴스충청인, 「당진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3곳에 '어린이 보행도움 깃발' 설치」, 2025.7.9.

Ⅰ 주요사업별 의견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 보호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비 필요

-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이 완전히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행동선 전체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호구역 내 차량의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보도 폭, 보도 단차, 경사로, 횡단보도, 신호체계, 점자블록, 안전펜스, 조명 및 안내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휠체어 이용자나 보행보조기 이용자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유모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 등 시설 설치 여부가 아닌 '실제 통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 필요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및 거동이 불편한 모든 주민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판단함.
- 특히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발달장애인 등은 일반 보행자보다 교통환경에 더욱 취약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좁거나 단절된 보도, 보도와 차도의 단차, 미흡한 경사로, 횡단보도 주변의 안전시설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동선 중심의 정비 필요

- 장애인의 이동은 특정 보호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 학교·복지시설 → 병원 → 관공서 → 상점 →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공간을 연결하는 이동으로 이루어짐.

- 보호구역 정비 시 단순히 특정 시설 앞만 정비하기보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생활동선을 파악하여 주요 시설 간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거주시설, 병원, 재활시설, 복지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유모차·고령자 등 모든 이동약자를 함께 고려한 정비 필요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는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기보다 영유아,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생활안전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휠체어와 유모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도 폭과 경사로, 안전한 횡단환경, 보행 장애물 제거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언젠가 이용하게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 단위 교통약자의 이동환경도 함께 점검 필요

- 홍천군은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 간 생활환경과 교통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역시 홍천읍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면 단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면 지역의 경우 보행시설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행정기관, 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편의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면 단위 교통약자가 지역 내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파악하여 지역별 생활권 중심의 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 정비 필요

-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문제점을 행정기관의 현장점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장애인가족·고령자·영유아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

하고 불편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환경 모니터링' 또는 현장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제시한 위험요소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정비 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동할 수 있어야 학교에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병원에 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따라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단순히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영유아, 고령자 등 모든 이동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Ⅰ 주요사업별 의견

□ 쓰레기 분리수거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 필요함.

-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함.
- 현재는 분리수거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쉽게 유도하기 위해 수거함에 배출방식 및 배출요일 등에 대한 스티커 부착이 필요함.





비건뉴스, 「제주도 쓰레기 배출·분리수거, 요일별로 확인하세요」, 2025.4.1.